

수산, 한빛화학 독과점체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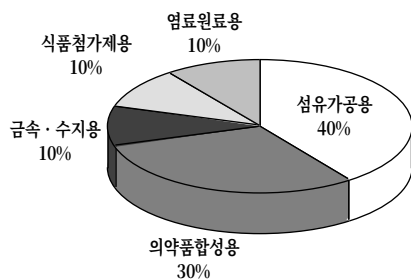
20억원 투입 월생산능력 350톤 증설 ... EG대신 원당 사용고려

원가부담에 허덕여온 국내 수산시장이 국제가 상승을 계기로 증설을 서두르는 등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회복에 나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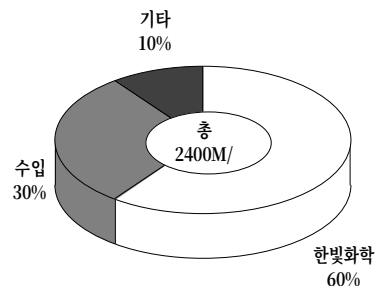
특히, 국내생산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한빛화학이 96년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 수산시장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산 원료인 EG가격이 91년 1/4분기 Kg당 330원에서 94년 112.1% 인상된 700원으로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가격은 91년 1/4분기 600원에서 94년 750원으로 가격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산 생산기업들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 수요구성비



수산 시장점유현황(1995)



그러나 이러한 시장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빛화학은 96년3월 약 20억원을 투입, 충남 연기에 월 350톤을 증설, 7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설은 원래 94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침체로 연기되다 95년 3/4분기 들어 원료가 상승으로 중국·인디아산 수산가격이 인상되는데다 다량 생산으로 가격을 인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EG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낮은 원당으로 원료를 대체,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화학은 증설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우려해 수입물량을 대체하고 저가정책으로 대만, 일본, 동남아 등지로 수출을 대폭 확대시켜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한빛화학의 증설과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국내 수산시장으로 볼때 심각한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어 정확한 수급분석과 충분한 수출선 확보가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산 시장규모는 현재 월 200톤으로 이중 한빛화학이 60%인 120톤, 소수 영세기업들이 10% 20톤, 수입이 30% 60톤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의 용도별 수요는 섬유가공용 40%, 의약품합성용 30%, 금속·수지용 10%, 식품첨가제용과 염료원료용이 각각 10%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수산시장은 89년까지 호황을 누려왔으나, 90년부터 정부의 보조를 받는 다량의 중국산이 국내로 유입되고 수요의 70~80%를 차지하던 섬유·신발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7개기업의 부도가 잇따르는 등 시장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한빛화학과 일부 영세기업만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